

<b>7 강</b>	
------------	--

핵심 개념	근대와 현대
내용	예술사의 구성, 산업혁명과 예술사, 근대와 현대, 작품 감상법, 책
개념 이해	전통문화설계, 예술사 밖의 전통과 현대, 현대주의 움직이는 박물관, 도시예술, 예술가의 사무실, 예술매체사회사, 예술가와 디자이너, 백남준, 증기력, 아이티와 예술사

1. 예술사의 구성

- 1) 사건, 연대, 망(작품, 예술가, 새로운 가치 등)
- 2) 구조

상위 \_ 문화예술, 문화인류  
 분야 \_ 미술, 문학, 무용, 음악, 공연, 오락  
 하위 \_ 그림, 글, 춤, 소리, 연주, 낭송, 쾌감  
 요소 \_ 선, 면, 형태, 빛깔, 배치(구도), 기호, 자세, 감각  
 형식 \_ 소통, 기원(주술), 신앙, 질서, 의식주, 기록, 무대



말레비치 풍, 구성

2. 예술의 정의에 따른 구분

- Ⓜ 구성주의 : 예술은 구성이다.
- Ⓜ 표현주의 : 예술은 표현이다.



3. 사진과 예술

기계가 디자인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신윤복, 쌍검대무  
 새로운 기술에 민감한 디자인 자체의 관심을 생각하면 익숙한 평가이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원시적인 단계의 기계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기술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갈등 국면을 결코 피할 수 없었다. 인류사에 있어서 원시시대의 벽화와 유물·유적에 담긴 **규칙적인 무늬(패턴)**를 오늘날 디자인의 활용에 견주어 디자인사 초기의 증거로 내세운다면 그 쓰임새에 관한 숙제가 남아있기에 매우 불확실한 상상력의 세계로 결론을 맺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규칙적인 무늬가 가진 일반 특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규칙적인 무늬가 가진 활용도는 빗살무늬토기만이 아니라 여러 쓰임새로 나타났다는 평가도 일반 특성에 따른 확신이다. 여기서 가장 흔한 판단은 규칙적인 무늬이므로 베끼기가 쉽다는 것이다. 베끼는 행위가 가능하면 다른 물건, 다른 공간에 비슷한 무늬의 적용이 가능해지며, 이것은 유행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생활공간의 통일성으로부터 생산의 일관성을 계획할 수 있다.

사진은 인쇄술 이후 가장 손쉽게 베낄 수 있는 기술의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판화 기법(인쇄)이 필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복사의 편리성을 제공한 이래, 사진기 출현과 그로부터 반세기 뒤에 나오는 실크스크린(초현실주의, 팝 아트 등)의 출현 사이에 나온 실물복사의 새로운 기법인 것이다. '필사와 복사의 관계는 '수공예와 기계공예'의 갈등만큼 크지 않았으나 20세기 초까지 풀어야 할 숙제의 한 가지였다. 한 장의 필름은 여러 장의 사진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이것은 조작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초상화로 먹고 살던 초상화 전문 화가들에게 사진기의 출현-프랑스의 루이 다게르가 1838년 발명하고, 1839년 그 기법을 설명한 데서 현대식 사진기의 기원으로 평가하며, 흔히 다게레오 타입-이 끼쳤을 곤란을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을 소설 이야기로 푼 '맘루카'는 화가와 사진가의 관계를 연인으로 설정하는 재미있는 상황으로서 화가와 사진가의 화해와 발전적인 갈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해와 갈등의 근대사와 다른 측면에서 디자인은 사진기의 새로운 표현법을 즉각 받아들였고, 제품에 활용하였다. 그 시각적인 증거 중에 포토그램 기법을 활용한 시각디자인, 특히 포스터는 디자인과 사진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본보기-러시아 출신의 리시츠키가 만든 포토그램 기법 포스터-이며, 오늘날 컴퓨터그래픽과 사진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니 단순히 과거의 한 일화로 덮을 일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도와 인체해부도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들-지도디자인, 인체해부도디자인-에 있어서도 사진기의 역할은 점차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산업혁명과 예술사

산업혁명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전주의(르네상스) 시기 이후 이루어진 전반적인 근대성의 형성을 배경으로 나타난 경제 발전의 성과, 과학과 기술 발달(코페르니쿠스·케플러·갈릴레이·뉴턴 등의 과학혁명과 영국의 왕립협회와 프랑스의 과학아카데미 등)의 성과이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들의 경제정책이었던 중상주의(重商主義) 비판이 중농학파(重農學派), 산업자본가와 시민 계급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농업과 토지를 중시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 정책'을 주장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자유방임 정책을 주장하며, '고전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국부론(1776)을 쓴 영국의 아담 스미스이다. 하지만 그는 중농학파와 달리 상공업을 포함한 물품 생산, 즉 노동력이 재부(財富)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유주의경제'-자유 경쟁의 시장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의 초석을 이루었다.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산업상의 변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기계가 나타났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모든 산업분야에 영향을 끼쳐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바뀌었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은 면직물공업이었다. 이는 새로운 부문으로서 모직물공업 전통(보기 - 베를 짜기)과 달리 제약이 적고, 값싼 대중적인 상품으로 넓은 시장과 나라 안팎의 수요·공급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이 공업의 발전사에서, 기술과 디자인의 관계, 그리고 산업혁명 초기 디자인의 위치와 생산을 엿볼 수 있다.

- ㉠ 1730년대 존 케이, '나르는 북'을 60년대 면직물공업에 응용하여 새로운 방직기계 출현.
- ㉠ 1760년대 제임스 하그리브스, '제니 방직기' 만들. 1769년, 리처드 아크라이트, '수력 방직기' 만들.
- ㉠ 1779년 사무엘 크롬프턴, '뮤울(mule) 방직기'라는 증기 방직기를 만들.
- ㉠ 1807년 로버트 풀턴이 증기선을 허드슨강에 띄움.
- ㉠ 1830년 조지 스티븐슨, 증기기관차를 만들.
- ㉠ 1844년 사무엘 모스, 유선전신 발명.
- ㉠ 1876년 알렉산더 벨, 전화 발명.

산업혁명은 산업사회를 낳았고 풍요로운 사회와 빈곤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생산력의 발전이 낳은 이윤과 혜택의 배분에 있어서 나타난 불균형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산업주의에 반대한 영국의 지식인들은,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달리 대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더욱 반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당대의 문학은 낭만주의의 향수(모더니즘의 밑거름), 자본주의 경제와 상업주의 및 근대사회의 비인간적인 경쟁, 그리고 차가운 현실의 법칙들이 없는 중세와 낙원(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으로 채워졌다. 문화 비판에 앞장섰던 칼라일의 사회적인 낭만주의, 존 러스킨의 미학적인 낭만주의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를 거부하고 혼란을 벗어나 초인간·초자연적인 질서에서 영원한 피난처를 구하고 있었다.

## 5. 공예운동과 예술사의 변화

### 1) 반(反) 산업주의의 영향

칼라일의 후계자인 존 러스킨은 산업주의와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신이 사라진 근대 문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중세와 기독교(헤브라이즘)에 바탕을 둔 공동체 문화에 가치를 두었다. 러스킨은 심미적인 이상주의를 주장하여 런던에서 성행(1848년)한 소박한 사실주의(라파엘 전파)을 대변하였다. 그는 인습에 대한 반항, 독재적인 형식에 대한 반발, 고딕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으며, 형식주의와 예술품의 숙련성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은 건강한 도덕적인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며, 아름다움과 창조력은 물질주의와 기계화의 시대에 시들 수밖에 없고, 예술이 타락하는 것이다.

사회비평가였던 윌리엄 모리스는 실천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는 러스킨의 이론에서 사회주의자를 만드는 것이 훌륭한 예술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라는 결론을 만들었다.

러스킨은 '예술의 타락 원인을, 현대 공장의 기계적인 생산방식과 분업이 노동자와 노동 사이의 내적인 관계, 즉 노동의 정신적 요소가 제거하고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에서 찾았다.' 이것은 중세의 생산 형태를 지향하기에 이르렀다. 러스킨의 영향은, 수공업품들의 거칠고 추함을 비판하고, 가짜 재료와 무의미한 생김새, 값싼 손질에 반대함으로써, '견고한 제품의 참 가치'를 일깨운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모리스는 환경에 따라서는 기계 기술이 축복일 수 있다고 여겼다. 예술이 창작을 통해서 가치를 일구며, 노동의 기쁨이자,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갖고 수공업운동을 일으켰다.

- ㉠ 미술공예 : 수공업, 일품제작
- ㉠ 산업공예 :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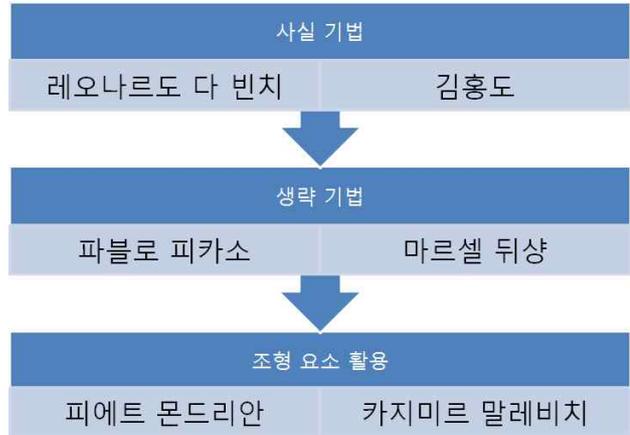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은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가치를 내세웠다. 이 운동은 산업혁명 후 예술의 사회적 기초가 불안정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회복을 위해 힘썼다. 윌리엄 모리스는 그의 '붉은 집'을 중심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생산하는 '모리스, 마샬, 포크너 상회'를 창립(1861)하였다. 이곳은 미술 종사자들(회화·조각·가구·금속 등)의 상회로서 종래 예술가의 독점적인 조합(길드)과 달리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결합시킨 작품 제작에 관심을 보였다. 이곳에 합류하였던 애쉬비는 1888년에 수공예 조합과 학교를 세웠다. 미술공예운동의 참가자들은 '미술과 수공예전시협회'(1886)를 창립한 뒤, 수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이 운동이 기계문명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건축과 공예에서 아르누보, 독일공작연맹, 영국·이탈리아·스웨덴·미국 등의 수공예협회 결성 등에 영향을 끼쳤다.

### 2) 장식운동

의상, 건축, 무대장식, 생활, 삽화 등에 걸친 장식미술운동으로서, 1890년대와 1900년대 전 유럽에 유행하였던 양식이다. 구부러진 곡선과 덩굴과 같은 식물무늬를 애용하였으며, 장식과 동양의 형태감을 선보였다.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크란스톤의 윌로우 디렉스 룸의 인테리어'(1904)와 같이 단순한 형태, 기하학적인 장식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르데코'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르누보는 아르데코와 달리 공업과의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다. 아르누보의 보석 디자이너인 르네 라리크의 작품은, 귀금속, 준 보석, 채색 유리를 조합하여 만들었으며 많은 복사가 이루어졌다.

6. 새로운 조형법

몬드리안이 선보인 미술양식-신조형주의-으로서 수평선과 수직선을 직각으로 이어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구성하였고, 삼원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1917년부터 1928년까지 나온 네덜란드의 간행물(몬드리안, 테오 반 도스버그 등 참여)인, 데 스틸(De Stijl)은 이 양식의 상징처럼 영향을 끼쳤다. 그는 미술가의 목적은 실재에 숨겨진 구도, 보편적인 조화를 그림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의 '나무' 연작(1908년-1912년)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 ㉠ 신조형주의 de stijl
- ㉡ 프랭크 스틸라 Frank Stella

7. 예술과 매체

- 1) 돌망치와 마우스 : 도구를 매체라고 말할 때, 예술에 있어서 도구는 망치 또는 그러한 류의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류의 도구 발전사로 본 매체는 돌망치를 매체로 보며, 그것은 오늘날 마우스와 같은 도구로 시공간의 너비를 넓혀 보고 있다.
- 2) 재료 : 대리석, 석회석, 화강암, 청동(브론즈), 플라스틱, 테라코타 등등.
- 3) 소품 : 주제적인 소품, 가면(탈), 악기(북과 기타), 무대복, 무대 등등.
- 4) 사물과 미술 : 사물, 오브제, 뒤샹, 백남준, 재스퍼 존스, 액자, 콜라주, 아상블라주, 설치, 즉물주의, 정크 아트 등등.
- 5) 기술과 예술 : 비디오 아트, 컴퓨터그래픽, 3디(D) 등등.
- 6) 소통과 매체 :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 등등.
- 7) 다섯 가지 분류

- 말글(언문)과 매체
- 미술과 매체
- 공연과 매체
- 음악과 매체
- 영화와 매체

8. 한국예술사의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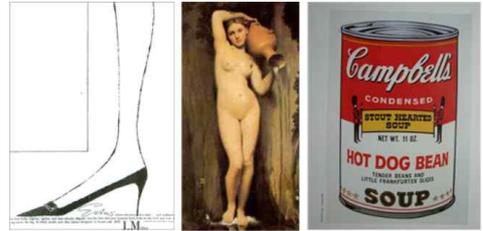
- 1) 말글(언문) : 한글, 세종대왕, 훈민정음, 이두, 한자, 용비어천가, 주시경, 독립신문, 훈맹정음(박두성), 최현배 등등.
- 2) 미술 : 사군자, 안견, 신사임당, 김홍도, 신윤복, 정선, 장승업, 김정희, 이중섭, 박수근, 김수근, 김환기 등등.
- 3) 공연 : 탈춤(가면극), 살풀이, 학춤(무), 동래학춤(울산, 양산 등.), 학연화대합설무(청학, 황학), 한성준(류), 처용춤(무), 판소리, 승무(영산제), 이매방, 무동, 굿 등등.
- 4) 음악 : 아리랑, 가락, 향악, 정악, 아악, 판소리, 타령, 도드리, 태평소, 장구, 팽과리, 사물놀이,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김창조 등등.
- 5) 영화 : 나운규, 김기영, 임권택, 신성일, 윤정희, 정유희, 영자의 전성시대, 로봇 태권브이, 서편제 등등.

보테로 풍

9. 총체성 : 갈래로 읽기

- 놀이와 예술
- 인형과 예술

- 매체와 예술
- 기술과 예술
- 역사와 예술
- 주물(신앙)과 예술
- 종교와 예술
- 사상과 예술
- 사회와 예술
- 산업과 예술



구두 광고, 샘, 캠벨 수프

10. 근대와 현대

20세기의 예술은 개념<sup>1)</sup>이었다. 21세기의 예술은 가치이다. 20세기 예술의 개념 가운데 절반은 고전에 관한 재해석과 고전에 대한 형식 파괴를 시도하였던 19세기 예술에서 싹터서 새로운 예술 개념을 만들었다. 21세기 예술의 가치는 모더니즘에 대한 찬동과 반발을 시도하였던 20세기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작하여 문화 가치와 순수 예술이 뒤섞인 다원주의의 진화에 따른 현상이다.

- 1) 근대와 현대 -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순수주의, 즉물주의, 여성주의 등.
- 2) 고전과 현대 - 화가와 디자이너, 음악가와 행위예술가, 장식운동과 기능주의(근대건축),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등.
- 3) 신고전주의 - 낭만주의 - 상징주의 - 후기고전주의 - 초현실주의(+초현실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작품 및 양식 재평가)
- 4) 신구논쟁 - 상징주의 기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 모더니즘(원근법 파괴와 영원성 파괴, 순수성, 실험성) - 포스트모더니즘(예술문화, 문화산업, 소품예술, 최소성, 기능성, 기호, 개념예술, 설치예술, 매체예술)

㉞ 사실 - 생략 - 요소

㉞ 조형 요소 활용 : 순수주의(퓨어리즘), 미니멀리즘, 구성주의, 절대주의, 추상주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 샘 바퀴와 의자 / 마르셀 뒤샹



남성용 소변기, 아비뇽의 아가씨들, 바이얼리니스트



새로운 조형법의 발전 (직선), 게리트 리트벨트, 레드블루체어(몬드 리안 의자)



초현실주의 풍 - 피레네의 성/ 마그리트

11. 근대성

1) 한국

한국은 개화의 태동과 서양과의 제한적인 교역에서 싹튼 근대성이 제국주의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오히려 전통예술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얽힌 저항과 투쟁의 세계관을 반영한 현대 예술을 지향하였다. 대한제국의 절반은 전통의 보전에 무게를 둔 예술관을 특징으로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현대화와 반제국주의의 힘을 찾는 예술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한국예술사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 급격하고도 복잡한 열개가 존재하며, 이 열개의 흐름을 어떠한 가치관에서 읽는가에 따라 고전과 현대 예술의 관계 해석이 이루어진다.

1) 모든 예술 분야에서 예술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힘썼으며, 심지어 개념에 의하여 예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19세기 말엽에 전통과 근대화의 올바른 방향을 찾았던 일에 견주어 20세기 말엽은 빠른 현대화와 매체 가치의 성장에 바탕을 두고 전통, 근대, 현대를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총체적인 문화예술관 위에 예술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대까지 가장 큰 목표였던 식민 잔재의 청산, 1980년대의 국가 체제의 정비와 새로운 문화 가치 생산, 1990년대에 아시아의 선두로서 국제적인 정보화와 매체 혁신에 힘쓰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한국예술사의 독자적인 체계성과 그 성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점증하고 있다.

2) 중국

중국은 외세의 침입과 교역의 흐름 안에서 거대한 변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전통을 보전하는 예술관과 서양의 현대예술을 결합하는 예술관, 일본과 유럽의 예술 흐름을 수입하여 전통과의 결별을 주장하는 예술관이 혼재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미 원대 후반에 활발하였던 전통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 정립과 예술사의 체계화는 명대 전반에 가장 중요한 임무 부여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청대에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가 예술가 또는 사상가들의 과제였다. 그런데 청대의 정치적인 난황과 일본의 침략, 사회주의의 확대와 공산주의의 유입으로 빚어진 국가 체제의 변화 등에 대하여 이들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가에 따라 전통과 현대의 예술사적인 문제들이 양극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19세기 말엽의 개화와 보수 두 진영의 열망은 20세기 공산화의 정치적인 현상과 문화대혁명에 섞이면서 전통 예술의 입지와 가치 평가가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예술관에 밀리거나 속박 당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198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을 찾으려는 궤도를 설정하면서 전통과 현대, 자본주의의 시장 체제의 종합적인 문화 기반으로 동북 공정의 목표를 세웠으며, 전통예술과 현대예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사회 속의 중국예술사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서양과의 교역을 실현하였으며, 17세기부터 이미 유럽과 상호 진출을 시행할 수 있었기에 서양 예술과의 교류에 따른 변화도 가장 먼저 폭넓게 경험하였다. 16세기 이전부터 침략적인 대륙 진출의 야망(대동아공영)을 드러내어 20세기까지 대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현대화에 힘썼다. 18세기에 이미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시도하여 회화 등에 있어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19세기에는 서양과 아시아 주변 국가에 현대예술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과 중국을 침탈하여 제국주의적인 예술관과 식민사관에 기초한 예술 전개를 펼치면서 일본의 방식으로 이해한 서양 예술을 퍼트림으로써, 왜곡된 현대예술을 주입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일본 자신의 문제이면서 주변 국가가 저마다 개선하고자 하였던 현대화의 상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 유럽

유럽은 대륙 안팎의 활발한 교류가 고대부터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국가의 예술 특성이 지역성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류에 따른 혁신적인 예술 가치의 마련에 힘썼다. 특히 18세기의 민주주의혁명과 19세기의 산업혁명은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의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끼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다양하고도 총체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장식운동, 후기인상주의, 디자인 운동, 문화산업의 확대 생산, 구성주의, 추상주의, 순수주의, 실험적인 예술관에 이르기까지 대변혁이 이루어졌다. 16세기 이후 더욱 활발해진 항로 개척과 탐험으로부터 전 지구에 걸친 교역로를 개발함으로써, 17세기 이후 유럽 예술의 다양한 수출이 가능하였으며, 19세기의 새로운 예술 가치가 국제적인 현상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림 10 폴 세잔의 새로운 조형 / 정물, 생 빅트와르산

1850년대에 생긴 예술산업박람회와 백화점은 1860년대에 미국에 상륙하였고, 19세기 말엽에 일본에, 20세기에는 전 세계로 확대 설립하였으며, 이것은 세계박람회와 세계예술제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1890년대의 영화 예술 등장과 비엔날레의 시작은 가장 큰 현대화의 표상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5) 미국

미국은 19세기 유럽의 변화에 발맞추어 빠른 혁신을 거듭하면서 미국 예술계가 느끼고 있던 전통의 부재에 대한 결핍감을 보완하고자 힘썼다. 정보통신의 빠른 유입, 산업사회의 빠른 정착, 현대화에 따른 예술 시장의 활성화 등을 실현한 것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유럽의 공예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공예 및 예술 산업을 폭넓게 펼치는 가운데 유럽의 현대예술 변화를 수입하면서도 미국식 예술 형식을 개발하는 데에 힘썼기에 1930년대 이후 실험예술의 도시인 뉴욕은, 프랑스에 있는 세계 예술인의 마을인 몽마르트에 견줄 만한 예술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프랑스의 비정형예술과 미국의 비정형예술, 영국과 독일 등의 공예협회와 미국의 공예협회,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미국적인 전개, 다다(dadaism)와 초현실주의의 뉴욕 활동, 유럽의 살롱(salon)에 대신한

뉴욕의 공장전시 형식, 루브르박물관 등에 대한 구겐하임미술관 등의 활약, 유럽의 플럭서스(Fluxus) 운동에 대한 미국의 팝 아트, 요셉 보이스(행위예술)·백남준(비디오 행위예술)·존 케이지(음악)·머스 커닝햄(무용) 등의 유럽과 미국 활동 등등은 미국의 현대예술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보여준다.

## 12. 개념 사전

### 1) 아르누보

수공예운동에 영향을 받고, 1890년대와 1900년대 유럽에 유행하였던 장식적인 양식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모던 스타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유겐트 스타일로 펼쳐다.

### 2) 독일공작연맹

미술공예운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대량생산물과 건축을 위하여 1907년에 뮌헨에서 예술가·숙련공·건축가가 모여 만든 조직이다. 이 모임은 건축가 헤르만 무테지우스와 앙리 반 데 벨데가 주도하였으며, 모리스의 생각을 기계생산물까지 확대시켰고, 장식성을 뺀 기능 중심의 형태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계 대량생산과 디자인 '표준화'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공작연맹(1912), 스위스 공작연맹(1913), 스웨덴 공예가조합(1915), 영국 디자인 산업협회(1915)가 이 단체에 영향을 받았다. 독일 건축가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주관한 전시회(1927)로 변화를 꾀하며, 그로피우스, 르 꼬르뷔지에 등의 건축가들이 무테지우스의 뜻에 따라 표준화 재료와 디자인으로 값싼 집을 짓는 운동을 펼쳤다. 1930년 파리의 '산업예술과 건축전시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1933년에 나치에 의하여 해체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모임을 다시 가졌다.

### 3) 신조형주의

몬드리안이 조형 요소를 강조하여 1895년부터 1944년까지 작품을 제작한 일, 건축가 테오 반 도스 버그와 함께 데 스타일을 간행한 일 등을 바탕으로 20세기 미술 전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 4) 바우하우스

근대건축에 바탕을 두고, 근대식 조형교육에 힘썼던 종합디자인·건축학교(1919~1933)이다. 건축가인 그로피우스를 포함하여 라이오넬 파이닝거,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 모홀리 나기, 신조형주의 교수진 구성주의자 등을 교수진으로 두었다. 프리델이나 몬테소리 교육론에서 볼 수 있는 색채, 형태, 양감, 질감, 소리와 냄새까지 알아내는 교육 과정과 함께 재료와 도구들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숙련된 미술 솜씨가 근대 산업기술과 조화를 이루도록 힘썼다. 1933년 이후 미국과 유럽에 폭넓게 영향을 끼쳤다.

### 5) 구성주의(Constructivism)

나움 가보와 앙드레안 페브스너가 러시아에서 창립한 조각 및 건축 추상운동(1907~1920)이며, 색면파, 신조형주의 등 회화와 연결된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1913)와 연관성이 깊었으며, 이후 러시아 '재건미술'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요소들의 순수성을 지향하면서 감정과 연상을 억제하고 기하학적인 형상과 단순미를 강조하였다.

### 6) 아르데코

장식미술로서, 모더니즘 디자인의 계기를 열었던 1925년, 파리의 현대장식·산업미술·국제박람회의 이름에서 출발한다. 아르누보와 달리 기계시대를 위한 미술운동이며 국제박람회와 함께 성장하였다. 재료에서도 공업과 미술을 결합하였으며, 대량생산을 추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에서는 품질과 양식의 우수함, 우아함을 갖춘 물건들을 만드는 미술(1918년 이후)이 성행하였다. 르네 라리크가 아르데코로 나아간 것은 그 본보기이다. 에밀 자코 롤만은 18세기의 단순화된 디자인에 기초를 둔 수공업 작품들로 부유층들을 움직였고, 모리스 뒤프렌느는 값싼 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백화점을 통해 중산층들이 구입하는 데에 힘쓰기도 하였다. 르네 주베르의 의자는 근대 실내장식 공간을 열고 과거의 디자인과 장식을 끊기도 하였다.

㉔ 1925년 전시에서 르 꼬르뷔지에는 1902년에 그가 설계한 작업실 메종 시트로앙과 이름이 같은 '주변에 나무가 있고 정원 테라스가 있는 시트로앙' 집을 전시하였으며, 주문으로 손쉽게 살 수 있는 대량생산 가구로 꾸몄다.

㉕ 화가 라울 뉘피도 1925년까지 건축물디자인으로 잘 알려졌는데, 1920년대 중반까지 여성들은 에두아르도 베니토가 그린 패션 드로잉(보그, 1928)처럼 가벼운 천으로 만든 옷을 어깨에서 직선으로 내려오게 입었다. 단순하고 새로운 옷들은 합성수지, 크롬을 섞은 새로운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보석 장식, 인조 장식 등을 덧붙였다. 소니아 들로네는 뉘피의 건축물과 반대로 네모, 장방형 대담한 색과 줄무늬로 색들이 대응하도록 표현한 뒤, '동시성'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남편인 로베르 들로네는 신비주의 입체파(Orphic cubism) 양식을 선보였다.

㉖ 영국에서 전쟁이 끝난 뒤, 밝은 색의 집과 자유로운 의복이 나왔다. 특히 개인주택들이 새로운 형식을 선보였으며, 미술공예운동의 이념과 방법이 갖든 것처럼 보이는 농가의 집을 갖춘 전원도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였다.

### 7) 팝 아트

미술가들은 도시를 보여주고, 미술과 시대를 일체화한 것처럼, 백화점에서 산 물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초현실주의의 형상처럼 특별한 공간을 유지하였다. 다다이스트들이 기존 미술 형식을 거부하고 기성품(뒤샹의 변기 등)을 활용한 선례를 이어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픽, 인쇄, 인화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시각디자인 기법의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앤디 워홀이 디자이너로 두각을 나타낸 뒤, 팝 아트라는 표현에 뛰어든 것과 같았다. 팝 아트는 플럭서스, 미니멀 아트와 마찬가지로 오

늘날 전 세계에 두터운 추종자를 만들었다.

#### 8) 옴 아트

반복적인 무늬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림으로 움직임을 활용하였던 경향이다. 스텔라, 놀란드, 라일리, 바자렐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의 양식 때문에 자주 구성주의, 키네틱 아트 등과 연결하여 평가한다.

#### 9) 미니멀 아트

리처드 볼하임이 조형의 최소성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하여 이름을 붙인 미니멀 아트(1965)는 미술과 음악에 있어서, 구성주의, 절대주의, 신조형주의의 흐름을 잇는 1960년대 말 미국의 미술 운동이다. 따라서 볼하임은 마르셀 뒤샹, 카시미르 말레비치, 애드 라인하르트, 로버트 라우센버그, 피에트(=피엣) 몬드리안, 도널드 저드, 토니 스미스, 크레이그 코프먼, 로버트 듀런, 로버트 모리스, 프랭크 스텔라, 케네스 놀란드, 진 데이비스,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을 포함하였다.

㉧ 1960년대 이전의 단순화들처럼 미니멀리즘 작가들도 예술작품의 순수성을 강조하였다. 색면, 단순함, 기하, 윤곽선, 원색, 기하학적 추상을 극복하고자 한 반서정성, 비표현 등을 추구하였고, 유리섬유·플라스틱·알루미늄·판금(板金) 등을 재료 자체로 두는 **조각** 작품을 포함하였으며, **음악**에 있어서 에릭 사티, 존 케이지, 라 몬트 영, 모턴 펠드먼, 필립 글래스, 스티브 라이크, 코넬리우스 카뒤, 프레더릭 레즈위스키 등은 단순한 유형의 선율을 선보였다. 미니멀 아트는 주관을 억제하고 기교, 풍부한 재료에 대한 반예술의 입장을 내세웠다.

### 13. 예술가 읽기

#### 1) 폴 세잔 : 프랑스 화가, 후기인상파 화가.

1907 유작전시회 열림.  
 1906 엑상프로방스에서 세상을 떠남.  
 1900 수욕도 제작. (피카소가 '아비뇰의 처녀들'에 반영.)  
 1890~1900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 제작  
 1895 파리에서 첫 개인전  
 1891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제작  
 1890 노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세잔 부인 제작  
 1888 에스타크 제작  
 1887 큰 소나무가 있는 생 빅트와르 산 제작  
 1873 목맨 사람의 집 제작  
 1872 포도주 시장 제작  
 1870 눈 내린 에스타크 제작  
 1860 들라크루아 연구  
 1839 프랑스 태생

#### 2) 백남준 : 비디오 행위예술가, 플럭서스 작가, 비디오 아트 창시자.

2006 미국에서 세상을 떠남  
 1993 독일 베니스비엔날레 독일 작가 초대  
 1984 뉴욕과 파리를 위성 중계하여 굿모닝 미스터 오웰 발표  
 1974 티브이 부처, 달은 가장 오래된 티브이다 등 비디오 설치 작품 발표  
 1967 뉴욕에서 살럿 무어먼과 오페라 섹스트로니크 발표  
 1963 독일 부퍼달 파르니스 화랑 첫 개인전  
 1962 조지 마키우나스, 요셉 보이스 등을 만나 플럭서스 활동  
 1959 피아노를 부수는 행위예술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를 선보임  
 1932 경기도 출생

#### ㉧ 작품 목록으로 작품 경향을 읽어보자.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1959년),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연습곡(1960년), 오리기날레(1961년), 작은 여름축제-존 케이지 이후(1962년), 바이올린 솔로(1962년), 페스툼 플럭소룸 플럭서스(1963년), 오페라 섹스트로니크(1967년),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1969년), 총체 피아노(1958년), 임의접속 음악(1963년), 로봇 케이-456(1964년), 비디오 신시사이저(1969년), TV 부처(1974년), TV 물고기(1975년), 달은 가장 오래된 TV다(1975년), TV 정원(1975년), 다다익선(1988년), 나의 파우스트(1989년 ~ 1991년), 전자 초고속도로:미국 대륙(1995년), TV 첼로와 비디오테이프를 위한 콘서트(1982년), 비디오 코핀(1970년),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1975년), 과달카날 진혼곡(1977년),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년), 바이 바이 키플링(1986년), 손에 손잡고(1988년).

3) 마르셀 뒤샹 : 프랑스 화가, 다다이스트, 기성품 실험예술가, 개념예술에 영향을 끼침.

“나는 아마도 바퀴의 움직임을 즐기 수락했던 것 같다.”

- 1887 외르 지방의 블랭빌-크레봉에서 태어나
- 1911 입체파 운동에 참가
- 1912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를 그림
- 1915 기성품(레디메이드) 제작
- 1917 뉴욕 양데팡당전, 샘 작품
- 1955 미국으로 귀화

'미국인에게 보내는 공개장'

"6달러라는 참가비를 낸 모든 화가는 작품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리처드 머트 씨의 작품 '샘물'을 거부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누군가는 그것이 부도덕하고 상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머트 씨의 샘물은 부도덕하지 않다. 머트 씨가 그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제작했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는 평범한 생활용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관점 아래, 그것이 갖고 있던 실용적 의미가 사라지도록 배치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소재의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냈다."

14. 작품감상법

- 1) 추상화의 원리로 예술 작품을 본다.
- 2) 민속품과 예술품의 차이는 감상 태도의 차이를 만든다.
- 3) 원근법과 공간의 이해

강의정리

- 1. 산업사회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예술에 있어서 산업사회 및 산업혁명은 예술 생산에 관한 본질적인 고민과 새로운 사회 속 예술 작품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하도록 부추겼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도구의 실현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으로서도 중요하였고, 전통 예술에 대한 예술가의 관점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한 일이었다.
- 2. 미술과 디자인은 산업사회의 예술계 전반에 대한 고민을 표상하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디자인은 미술이지만 순수예술의 가치관과 대립하는 방법을 내세움으로써, 한편에서는 예술의 사회적인 기능을 정립하도록 도왔고, 다른 한편 예술이 자본주의의 시장 구조에 편입하도록 이끌었으며, 이로부터 예술가들의 예술 가치관에도 사회성과 자본주의의 의미가 조금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열었다.

책

미술비평연구회 엮음, 상품미학과 문화이론, 눈빛, 1995. 06. 3쇄.

□ 알림 : 초청 특강 '인문학방법론: 생각 기계 - 물은 위로 흐른다', 11/24, 저녁7시, 부산 백년어서원

끝.

수고하셨습니다.